

## '24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 1. 회의 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4 -2	2.21	회의실	10/13	4	1	15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곽선희·김영신·송경용·오광호·오동식·이상길·이숙희·임동훈·조경완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이승철(콘텐츠본부장), 이계상(시사보도본부장), 정석훈(경영심의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3	6	0	1	10	0	1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0	0	0	10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미래지향적 밝은 내용의 뉴스로 채워 지기를 바람	<뉴스데스크> 위기 가정에 주민들 이 힘 모아 새집을(3.5), 다문화 외 국인 가정 새 학기 맞이(3.5) 등 방 송 조치	'24.2.
"	의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 게 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계속 취재 바람	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2.26)	"
"	<시사 용광로> 친구 정치인의 조화를 맞춰 네 명 정도 출연하였더라면 조금 더 흥미를 유발하는 토론이 되었을 것 임	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2.26)	"
교양	생활, 예술, 체육, 음식 등 각 분야에 서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분들과의 인터뷰와 다채로운 구성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는 프로그램 바람	<본방을 보자> 우승을 향해 슛! 광 주FC 홈 개막전(3.7), 극장을 채운 열기! 제38회 광주연극제(3.7) 우먼 파이터 최희화 씨름선수(2.29), 김소 율 격투기 선수(2.22) 등 방송 조치	"
"	<본방을 보자> 시청자의 몰입도도 높 이고 정보를 주는 구성 바람	자막, CG,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 로 지역 현안, 생활, 문화예술 등 지역민의 관심 분야 정보 제공 조치	"
"	시청자 관점에서 시청자에게 어떤 도 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프로그 램 제작 바람	편성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의견 반영 권고 조치(2.26)	"
"	<본방을 보자> 뉴스 코너 시 청취자의 실시간 채팅도 읽어주길 바람	편성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의견 반영 권고 조치(2.26)	"
"	<광주MBC보다> 자막이 빠르게 지나 가 아쉬움	편성책임자 의견 전달 및 자막 속도 검토 조치(2.26)	"
"	<본방을 보자>, 다른 지역보다는 광주 의 노포 맛집, 먹을거리 소개 바람	<본방을 보자> 월간본술랭가이드 화순에 가면(3.6), 바다를 품은 이색	"

		김밥(2.29) 등 방송 조치	
기타(시청자 의견)	<뉴스투데이>, 다른 지역 소식보다는 지역 현안에 관심 필요	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2.26)	"
합계		10건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미래지향적 밝은 내용의 뉴스로 채워지기를 바람	밝고 따뜻한 뉴스 발굴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음	○		
"	의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계속 취재 바람	그동안 보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관심을 가지겠음	○		
"	<시사 용광로> 신규 정치인의 조화를 맞춰 네 명 정도 출연하였더라면 조금 더 흥미를 유발하는 토론이 되었을 것임	4.10 총선을 앞두고 최용선, 천하람 등 청년 정치인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음	○		
교양	생활, 예술, 체육, 음식 등 각 분야에서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분들과의 인터뷰와 다채로운 구성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는 프로그램 바람	앞으로도 지역 밀착적인 소식을 정확하고 폭넓게 다루도록 하겠음	○		
"	<본방을 보자> 시청자의 몰입도도 높이고 정보를 주는 구성 바람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	시청자 관점에서 시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프로그램 제작 바람	기획 단계부터 시청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실질적인 유익함을 줄 방법을 고민하겠음	○		
"	<본방을 보자> 뉴스 코너 시청자의 실시간 채팅도 읽어주길 바람	기술적인 문제로 수동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음	○		
"	<광주MBC보다> 자막이 빠르게 지나가 아쉬움	시청자들이 자막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음	○		
"	<본방을 보자>, 다른 지역보다는 광주의 노포 맛집, 먹을거리 소개 바람	우리 지역의 다양한 먹을거리, 음식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		
기타(시	<뉴스투데이>, 다른 지역 소식	<뉴스투데이> 전국뉴스 코너를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청자 의견)	보다는 지역 현안에 관심 필요	통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뉴스를 전국화하려고 노력 중이며,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4년 2월)

일 시	2024. 2. 21. 수. 오후 5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 곽선희, 김영신, 송경용, 오광호, 오동식, 이상길, 이숙희, 임동훈, 조경완(10명)	
	회사	김낙곤 사장, 윤근수 경영인프라본부장,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4명)	

###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2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먼저 사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편성과 보도 부분 업무 보고를 해달라.
- 김낙곤 사장 : -올해 광주문화방송은 창사 60주년이 되는 해다. 홍보 영상을 방송하고 있는데, 올해는 대형 기획을 통해 시청자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창사 60주년을 만든 주인공은 시청자 여러분이다. 광주 MBC의 60년을 만든 사람들을 찾고, 프리미엄 클래식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현안을 깊게 진단할 특집 대토론포도 마련할 것이다. 영산강 그란폰도와 대한민국 김치대전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다. 미래전략TF를 운영하고 있는데 곧 좋은 기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무등산사랑환경대학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관심을 당부드린다.
-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 -<본방을 보자> 신년 자치단체장 릴레이 초대석, <우리는 지역에 살아요> 양림동 편을 제작했다. 창사 60주년 기념 영상,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캠페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제작하고,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광주 공연 예매를 진행 중이다. 주요 계획으로는 RAPA 제작지원을 신청하는 것과 <테마기행 길> 나주 편, 세계 속의 마한 전국 편성 등을 준비하고 있다. <얼씨구 TV> 김윤희, 신유진 편 녹화가 3월 6일 예정돼 있으며, 영산강 그란폰도를 준비하고 있다.
-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 -4.10 총선 앞두고 지역 정가 움직임을 집중하여 보도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 후보 컷오프 등 선거구별 상황 지속 보도하고, 개혁신당 창당·준연동형 비례 대표제 등 정가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활발한 움직임과 정책을 소개하는 총선 브리핑도 하고 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유물 구매 시 검증 없이 부실하게 진행하는 상황을 보도했다. 광주MBC 뉴스 채널 유튜브 구독자 배가와 활성화를 모색 중이다. 주요 계획은 차별화된 뉴스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원 신청을 준비 중이다. 뉴스 스탠바이 시즌2 '뉴스나다'의 새로운 유형을 제작하고자 한다. 5.18 특집 다큐 제작 관련해 언론재단에 제작 지원을 요청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강필오 위원 : -1월 30일 <우리는 지역에 살아요>에서 오랜만에 광주 모교를 찾아온 기아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을 만날 수 있었다. 추억과 희망을 품고 오늘도 단단하게 채워지는 양림동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문화가 지역에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알려줬고 역사, 문화를 품은 양림동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2월 1일 <본방을 보자>에서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100도를 훌쩍 넘었다는 소식과 함께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챙겨주는 뉴스본방까지 기분 좋은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알려줬다. 2월 2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보성 여행 코스'를 소개했다. 우리 지역 보성에서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여행 코스도 알려주고, 울포해수욕장센터, 다원, 계절 음식 전문점에서 맛보는 새조개 샤브샤브, 즐길 거리부터 먹거리까지 보성 여행 정보를 유쾌하게 소개했다. 2월 14일에는 '찬란한 호수 위 보름달이 떴어요'라는 주제로 남구 노대동 물빛근린공원을 소개했다. 특색있는 조형물을 호수 위에 설치하고, 조명 및 조형물 등을 점등

하는 등 가보고 싶은 호수공원을 알려줘 좋았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간인 이달 말까지 답교놀이, 소원 빌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많은 분이 방문해 좋은 추억 쌓길 바란다. 2월 19일 <테마기행 길> '전라남도 강진 여행'에서는 '문화유산이 가득한 청자의 고장 강진, 멋과 맛이 가득한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주제로 최주봉 씨가 진행했다. 청자의 멋, 다산 정약용으로 유명한 월출산의 차와 다식, 백련사, 맛있는 음식 등을 소개했다. 강진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을 정도로 즐겁게 시청했다. 2024 영산강 그란폰도가 5월 11일 나주시 영산강둔치체육공원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생방송으로 방영되는 우리 지역 스포츠 축제이니 많은 분이 관심을 두기를 바란다. <보통의 존재>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태권도 품새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강완진 선수가 힘겨운 재활을 이겨내고 장애인 선수들을 보살피면서 부상의 아픔과 재활의 어려움과 막막함을 이겨내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 성취감을 느낀다는 인터뷰가 기억에 남았다. 강완진 선수 앞에서 직접 불러주는 노래는 자신에게도 선물을 주는 느낌이었다. 김민지 씨가 직접 노래를 불러주고, 편지를 읽어주는 구성이 좋았다. 생활, 예술, 체육, 음식 등 각 분야에서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분들과의 인터뷰와 다채로운 구성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 박선희 부위원장 : -2월 1일 <시사 용광로>에서는 '두 달 앞 총선, 신당 파급력은 어디까지'를 주제로 방송했다. 이준석, 이낙연 연합 빅텐트 전망은 밝은 편은 아닌 것 같다. 현재까지 양당 체제가 견고하며 역대 제3당, 4당이 성공하지 못하고 소멸했기 때문이다. 생산적 토론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며 짧은 시간에 같이 잘 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든다. 양당에서 컷오프당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여 국민의 지지도도 현재까지는 떨어진 것 같다. 그리고 너무나 색깔이 다른 제3지대 신당들이 총선 이후에도 유지될까? 우려도 된다. 역대 신당이 성공한 사례 없었기에 위기의식 가지고 합당 후로의 명확한 정체성 필요할 것 같다. 2월 1일 <본방을 보자>에서 소개한 중소기업 안정 자금 지원정책은 열악한 지역 환경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인 듯하다. 광주와 5개 구가 시행하는 청년지원정책 실효성 미비에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 질타 소식에 공감되었다. 청소년들이 제대로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위한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였으면 좋겠다. 광주극장 여성 감독 작품 소개 등은 좋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영화 소개 시 고정된 한 화면 보다는 소개 하는 영화 포스터를 보여줬으면 시청자들의 몰입도도 높이고 영화정보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방 코너에서 겨울 여행지로 보성군이 직접 운영한 울포 해수욕차센터와 해수탕 곳곳 소개 시 우리 지역 소개여서 훨씬 호감이 갔다. 더불어 제철 음식인 새조개 샤브샤브 등 즐길 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하여 겨울 추위에 더욱 매력적인 여행지인 듯하다. 1972년 개교된 대구의 삼일 야간학교 소식은 아직도 배움의 한을 안고 계실 분들에게 용기와 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식이어서 의미 있는 코너라는 생각이 들었다.

○ 김영신 위원 : -<광주MBC 보다> 프로그램은 지역 현안의 뉴스 및 생활정보 등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쉽게 알려준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어 많은 시청자가 여러 채널을 통해 편하게 시청할 수 있다. 2월 5일 방송에서는 반려견 태풍이의 이야기로 시작하였는데, 흔히 반려견 하면 어린 강아지를 생각하기 쉬운데 노령견 태풍이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어 동물과 생명, 사랑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에서 예쁘고 긍정적이고 하기 쉬운 이야기보다는 그 이면의 어두운 면, 힘든 면, 도움이 되는 면들을 소개해 주니 좋았다. 방송의 순기능이 아닌가 싶다. 2월 19일 방송에서는 지역 뉴스 소식으로 고령 딸기농장 소식을 전했는데 딸기의 빨갛고 핑크빛 색깔이 화면을 짝 채우다 보니 봄이 성큼 다가온 느낌에 기분이 좋았다. 많은 시청자분이 아마 그러하였으리라 생각이 된다. 1월 29일 방송에서는 연초를 맞아 '반드시 이루리! 2024 새해 목표!'라는 주제로 새해에 목표를 잡아 실천해 볼만 한 여러 취미활동을 소개해 주었다. 새해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주저하고 있을 여러 시청자에게 도전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시작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주어서 좋았다. 특히 프리다이빙, 다양한 악기 등을 배울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이 광주에도 있다는 점 등을 알려주어서 좋았다.

여러모로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처럼 계속 시청자의 관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 송경용 위원 : -<본방을 보자> 2월 1일 방송에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로 광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2,650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1,950억 원 지원 예정이라고 했다. 업체당 3억 원 지원과 영업 손실 발생 시 이자 1% 추가 지원 등을 안내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어 좋았다. 새로운 정책을 이야기해줄 때 이 정책이 생긴 이유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정책이 있다면 이미 실행 중인 지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혹은 광주에서 첫 시작이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시 청년지원 정책은 지역 청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시의회는 청년정책 담당자에게 따끔한 질책을 이야기했다.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이 모른다는 비판과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은 지원 안 되는 등 세부 내용도 지적했다.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광고로 많이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 뉴스를 본 후 정책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찾을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좋았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광주시의 중요한 정책 혹은 새로 생긴 정책을 간단한 키워드로 알려주고 그것을 본 시청자들은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35년까지 1만 명 확충한다고 한다. 올해부터 2천 명씩 증원해 앞으로 5년 동안 5,000명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의대에 집중하여 배정하고 공공의대를 실현할 것이라고 한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 해줬다. 정책의 양면성을 알려주어 청취자들도 이 정책을 듣고 다양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어서 좋았다. 새로운 정책에 대해 왜 이런 정책이 생겼고 향후 어떻게 발전이 될 것 같다는 정부의 의견도 알려주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한 뉴스당 청취자의 실시간 채팅도 읽어주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 오광호 위원 : -<광주MBC 보다>에서는 추운 겨울 실외와 실내에서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거리를 소개했다. 특히 무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기차놀이, 군밤 구워 먹기, 달고나 놀이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바다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서핑을 실내에서 체험하는 모습이 새롭게 보였다. 다음 코너에서는 뚜벅이 여행자들이 부산 기장을 즐기는 모습을 담아주었는데, '초소형 전기차 공유 서비스'가 눈에 띄었다. 초소형 전기차는 2인용으로 아주 작은 모습이었는데, 뚜벅이 여행자를 위해 관광용으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전기차 뒤의 QR코드를 통해 어플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아래 사용 방법이 간단하게 나오긴 했지만, 문구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아쉬웠다. 좀 더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주며,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자만 탑승 가능하다는 점 등 주의사항을 더욱 강조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본방을 보자>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코너의 소식 중 전라남도에서 오는 8월부터 월 20만 원씩 18년간 출생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전남에 거주하고, 전남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이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한다. 전라남도의 22개 모든 시군이 적극 참여하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전례 없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인식을 같이하고 출생수당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도 많아지길 바라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걸음이 되길 바란다. 다음으로 '돼지를 부탁해' 코너에서는 미니피그를 키우는 집사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아주 작았던 미니피그가 100kg이 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다. 다만 밥을 먹고, 산책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산책 장소가 운전면허연습장이라는 점이 아쉬웠다. 뒤로 운전면허 연습 차량도 지나다니는데, 미니피그와 강아지가 목줄 같은 보호장비도 없이 도로를 지나다니는 게 위험해 보였다. 운전면허 연습자들에게도 운전 중 관심이 가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되기도 하였다.

- 오동식 위원 : -광주MBC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국건설이 보증사고를 피하려고 아파트 사업장 공정률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내용 등으로 4회에 걸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광주 동구청을 집중취재 보도했다. 광주



MBC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건설사에 편의를 봐줬나?”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광주전 남지사장이 한국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한 후, 건설사가 공정을 변경 등의 동구청 승인을 받아냈고 이는 건설사 측에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지사장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정부진 사유를 파악하고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며,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공정표 수정은 동구청의 고유권한이지 지사장의 의견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이다. 기자도 취재 과정을 통해서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입주민의 입장에 집중한 나머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입장은 생략돼 있다. 이 문제를 4회에 걸쳐 집중 보도를 하면서 그동안 한국 건설의 부실, 유동성 위기 등 문제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관할 구청의 문제에 집중한 것은 이들의 사회적 역할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게 할 수 있게 만든다. 특히 특정인의 의혹 인신공격성 보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 개인의 일신상에 타격을 줄 수 있겠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무엇보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건설자재 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더 해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까지 가세해 지방 중소 건설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건설회사의 부도 등 악재의 뉴스를 연속 보도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를 돕고 결과적으로 경기침체를 가속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증이 부족한 의혹이나 질타성 인신공격보다 건설적인 제안과 한마디의 격려가 우리 사회를 밝게 인도한다. MBC 뉴스 역시 미래지향적 밝은 내용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뉴스데스크> ‘마을버스 주유는 의장님 주유소에서?’ 보도에서는 무안군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무안군 마을버스들이 수년째 주유를 해왔고, 해당 버스업체는 무안군에서 유류비 등 한 해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무안군의회가 변호사를 선임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나서는 등 대처에 나섰다 한다. 관련 결과가 나오면 후속 보도를 해줬으면 한다. 관련 법상 지방의원의 겸직이 불법은 아니라지만 영리 목적의 겸직 신고를 한 광주와 전남지역 의회 의원들에 대한 집중취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과적으로 의원의 신분으로 영리 목적이나 이해관계 등이 얹혀 의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광주 MBC가 매의 눈으로 계속 취재해 주면 좋겠다.

- 이상길 위원 : -<본방을 보자>에서는 도심 곳곳이 명절 쓰레기로 몸살이고 과대포장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의류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포장 횟수 2번 이내, 선물 세트 포장은 제품 25퍼센트 초과 금지를 소개하는 등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좋았다. 또한 그에 대한 허점도 알려줘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또한 환경단체의 의견을 전하며 자연스럽게 시민 의식 개선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기아 타이거즈, 제11대 감독에 이범호 선임 소식도 관심이었다. 남자 앵커의 이범호 감독과의 개인적인 일화를 통해 이범호 감독에 대한 상세한 느낌을 전할 수 있었다. 또한 쪽 기아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을 미리 짚어내어 그 부분을 커버할 정도의 장점을 말하며, 혹여나 있을 수 있는 비판적인 시선을 미리 차단했다. 2024 ACC 시민 오케스트라 신규 단원 모집을 소개했는데, 모집 정보 전달과 함께 홍보 효과까지 같이 가져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자앵커의 직접 경험한 일화를 통해 더욱 신뢰성을 높였다. 본격 초대석에서는 광주장애인철페연대와 함께 명절에 관련된 장애인들의 시외 이동권의 현상을 다뤘다.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주며 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대부분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명절 귀향길이 쉽지 않음을 밝히며, 고속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항공권 등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함을 밝히며 시민들이 도와줄 방법을 소개해 주어서 좋았다. 초대석 대표분은 너무 아래로 대본을 보고 말씀해서 보기에 살짝 불편했다. 노포의 정석 청양 순두부찌개 소개했는데, 광주 프로그램인 만큼 굳이 대전, 대구를 소개하기보단 광주 노포 맛집, 거리를 소개하는 건 어떨까 싶다.
- 이숙희 위원 : -2월 6일 <본방을 보자>에서는 찬란한 호수 위에 보름달이 뜬 소식을 전했다. 남구 물빛 근린 공원에서 저녁에만 점등이 되는 호수의 조형물이었다. 안전한 운동과 포토존이 있어 색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 특히 소원 빌기가 좋아 보였고 새로운 느낌이었다. 호수 점등에 사용된 에너지원의 개통이 탄소

중립과 융합되어 기후변화와 연동하여 미래의 우리 세대에 깨끗한 기후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은 공간으로 탄생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임동훈 위원 : -<시사 용광로>는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가적인 현 이슈를 적절히 잘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주제 선정, 진행 및 토론 내용 등 전반적으로 훌륭하게 진행되어왔다고 생각한다. 방송한 지가 좀 됐지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강서구청장 선거를 분석하고 향후 총선에 대한 전망과 우리 지역 정치를 되짚는 걸 인상 깊게 시청했다. 두 토론자의 수준 높은 토론과 진행자의 수준이 돋보였다. 대표적인 신세대 정치인인 천하람 위원장과 원로 정치인인 박지원 원장이 서로 반대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하니 전체적인 짜임새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토론자들을 지정할 때 신규 정치인의 조화를 맞춰서 네 명 정도 출연하였더라면 조금 더 흥미를 유발하는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 조경완 위원장 : -사측이 제시한 내용 가운데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으로 광주MBC 뉴스투데이에서 철원, 원주 등 다른 지역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쇼핑몰 등 지역 현안에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의 의견은 어떤가.
-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MBC 뉴스를 통해 전국에 보도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지역 MBC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현안을 서로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소식을 광주MBC에서 보도하듯이, 반대로 광주·전남의 소식도 다른 지역 MBC의 뉴스를 통해 방송하고 있다. 시청자께서 지적해주신 점 이해가 되며, 다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취재하고 시청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 조경완 위원장 : -다른 지역 뉴스와 우리 지역의 뉴스가 시청자의 오해가 없도록 안배되는 게 좋겠다. 지난달 시청자위원회 의견 제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 회의자료를 참고 바란다. 위원회 의견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가 된 것 같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2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끝.